

빛가람혁신도시 전국 혁신도시 중 고용효과 1위

한국개발연구원 ‘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’ 분석 보고서

총예산 1조4734억원 전국 3위...지식기반사업 고용효과 큰 폭 감소

2019년 수도권으로 인구 첫 유출...주변 지역 인구 흡수 부작용 발생도

전국 10개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시작된 2013년 이후 6년 동안 나주 혁신도시의 고용증대 효과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.

하지만 기존 산업이 뚜렷하지 않았던 나주지역 특성상 지식기반산업 고용효과는 오히려 감소했다.

이 같은 내용은 21일 한국개발연구원(KDI)이 발표한 ‘KDI 정책포럼’ 보고서 중 ‘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’ 자료에 담겼다.

문운상 KDI 연구위원은 광주·전남 공동 혁신도시(빛가람혁신도시)를 포함한 부산, 대구, 울산, 경남, 제주, 강원, 충북, 전북, 경북 등 10개 혁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인구분산·고용효과를 분석했다. 노무현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위해 추진한

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2005년 계획이 수립된 뒤 2012년 이전이 시작됐고 2019년 마무리됐다.

문 위원은 ‘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’를 활용해 지난 2006~2012년 대비 2013~2018년 평균 혁신도시 시 모든 산업부문 고용증감률 인근 사·도와 비교했다.

나주 혁신도시시는 인근 광역시인 광주의 고용 증감률보다 12.8%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제주를 제외한 9개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다.

충북(21.4%포인트)과 전북(13.8%포인트), 강원(11.3%포인트), 부산(0.7%포인트), 경북(0.7%포인트), 대구(0.3%포인트) 등 순으로 고용효과가 높았다. 평균적으로 9개 혁신도시 고용효

과는 인근 사·도보다 0.7%포인트 높았다.

고용효과가 오히려 떨어진 지역은 경남(-3.1%포인트), 울산(-4.4%포인트) 등 2곳이었다.

모든 산업 부문에서는 나주 혁신도시 고용효과가 가장 컸지만 지식기반산업 고용은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했다.

지식기반산업은 연구개발(R&D) 지출이 높은 산업을 말하며, 지식기반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민간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.

나주 혁신도시시는 같은 기간 동안 광주 지식기반산업 고용증가에 비해 49.6%포인트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. 이 같은 감소 폭은 9개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컸다.

지식기반산업 고용이 크게 늘어난 부산(24.0%포인트)과 강원(14.6%포인트), 전북(13.8%포인트) 등과 대조적이었으며, 전국 평균 증감률(4.8%포인트)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.

문 위원은 “이 같은 지역별 편차는 부산의 금융 및 영화산업이나 강원도의 의료산업과 같이 이전기관의 산업이 이전 지역의 기존 산업과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가에 크게 좌우된 것으로 보인다”며 “혁

신도시의 건설방식에 따라 모(母)도시의 기반시설과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가에 영향을 받았다”고 설명했다.

신도시형으로 건설된 나주 혁신도시시는 지난 2015년 말 기준 1조4734억원의 사업예산이 들어갔다. 10개 도시 가운데 전북(1조5851억원)과 대구(1조5292억원)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.

나주 혁신도시 주민등록인구는 올해 상반기 기준 3만8400명으로, 계획인구 5만명의 76.8%를 채웠다. 나주 혁신도시 계획인구 달성률은 평균(85.6%)을 크게 밑돌았으며, 충북(76.7%)과 최하위를 기록했다.

가족동반 이주율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68.8%로, 제주(81.5%), 부산(77.5%), 전북(73.8%), 울산(70.5%)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았다.

빛가람혁신도시가 속한 나주시 인구는 본격적인 이전이 시작된 2014년 이후 순유입을 이어오고 있다.

수도권으로부터 순유입한 인구는 지난 2014년 1923명으로 최다를 기록한 뒤 2017년 1061명,

2018년 181명으로 급감해왔으며 급기야 2019년에는 155명이 수도권으로 순유출됐다.

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이 발생하면서 전체 순유입 인구는 7566명(2015년)→6168명(2016년)→5756명(2017년)→3746명(2018년)→998명(2019년) 등으로 4년 연속 감소 추세다.

지난 2019년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간 순유입(725명)과 전남도 내 순유입(7428명) 등 1153명에 달하는 주변지역 인구를 흡수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.

직업 때문에 나주로 거주지를 옮긴 순유입 인구는 2014년 2461명에서 2015년 386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6년 1987명, 2017년 1911명, 2019년 740명, 2019년 545명 등 4년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.

문 위원은 “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전지역 주변 대도시의 기반시설과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”면서 “보다 근본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공공기관 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”고 제안했다. /백희준 기자 bhj@kwangju.co.kr



“할러윈 럭키백 받으세요” 21일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 직원들이 호남에서는 이날 처음 문을 연 덴마크 브랜드 매장 ‘플라잉타이거 코펜하겐’에서 다양한 소품을 선보이고 다. 이 매장은 오는 24일까지 1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8가지 상품이 든 ‘할러윈 럭키백’을 매일 50개씩 선착순으로 증정한다. <롯데쇼핑 제공>

광주권 레미콘 단가 4% 인상 합의

m³당 7만1600원

광주권레미콘협의회와 대한건설자재직협회의는 레미콘 단가(25mm-24Mpa-150mm 기준)를 m³당 6만8400원에서 7만1600원으로 4% 인상하는데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.

당초 광주권 레미콘업계는 레미콘 제조원가가 업체 평균 전년 대비 7.2% 인상됨에 따라 최소

5%이상 인상을 요구했으나, 건설업계는 운송비와 원자재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2~3% 수준을 제시해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.

다만 건설업계와 광주권 레미콘업계는 코로나 19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상생에 공감, 5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4% 인상에 합의했다.

광주지역은 매년 레미콘 단가 인상 때마다 레미

콘업체와 건설업체 간 갈등이 극심해지면서 공급 중단 사태로 치닫기도 했지만, 올해는 협상이 무난히 이뤄졌다는 점에서 지역 내 건설현장 분위기가 달라지는 분위기다.

광주권레미콘협의회 관계자는 “레미콘과 건설업체 간 갈등으로 자재수급의 불안이 심화할 경우 경영악화는 물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서 상호 대승적으로 양보를 했다”면서 “경쟁·대립에서 상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지역 건설 산업도 미래가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다”고 말했다. /박기용 기자 pboxer@

농지연금 가입연령 하향 등 수급자 중심 개편 추진

저소득 농업인 등 지급금 추가도

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 가입연령 하향, 우대상품 도입 등 수급자 중심의 농지연금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.

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2022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.

가입연령 기준을 현재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추고 선순위 담보 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 가입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.

기존에는 담보액이 농지가격의 15% 미만인 경우만 가입할 수 있으나, 15~30%인 경우 일시 인출형 가입 후 기존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허용된다.

생계급여 대상자 등 저소득 농업인과 영농 경력 30년 이상인 장기 영농인이 종신 정액형에 가입하는 경우 월 지급금을 5~10%까지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.

연금 가입자가 사망해도 담보 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수 있거나 임대 수입과 월 지급액의 5%를 추가로 주는 임대형 상품을 신규 출시하기로 했다.

이밖에 연금 지급이 끝난 뒤 농지를 처분해 농지연금 채무액을 현금 상환할 경우 공사가 농지를 우선 매입할 수 있는 담보 농지 매입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.

2011년 도입된 농지연금은 지금까지 누적 가입 1만9000여 건, 월평균 9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.

/백희준 기자 bhj@kwangju.co.kr



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 광주시 소상공인연합회(회장 이경채·앞줄 가운데)와 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(부회장 정민식·왼쪽 5번째)은 21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에서 ‘광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 업무 협약’을 맺고 소상공인 권익 향상에 힘쓰기로 했다. <하나은행 제공>

중

앙

꼭! 받아야할 돈 회수

※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!
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.
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가 직접 관리합니다.

절대

선 수 금

출장비용

없음

(재산조사비,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)

• 채무자 재산, 신용·주거래은행·차량 등 파악

• 실거주지 파악 가능

•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

전문추심인

직접관리

24시간 상담가능

판결문, 공증·공사대금·각사·운송료·차용증
거래장부·계약서·입금 내역·녹취 등 각종채권상담

중앙신용정보

직통전화 062)521-4109
010-2860-4700

신

용

광주보청기 난청센터

보청기

무료체험

직접 체험 후 결정!!

잡음없이 깨끗한 소리

윙윙~ 울리지 않는 보청기

062)362-3336

광주 동구 대인동 183-2번지(한미쇼핑사거리)